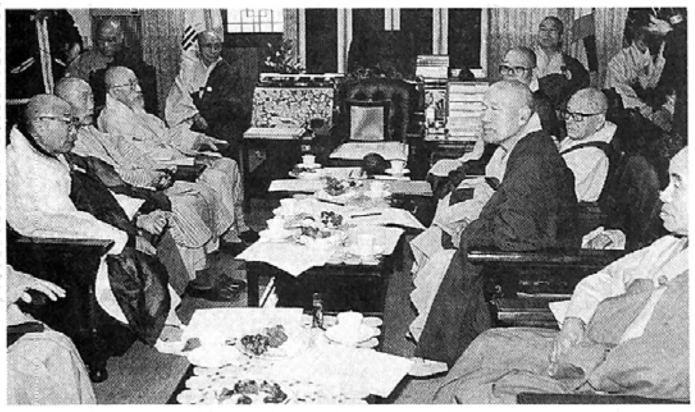
큰스님 수행한담

수행속에 생활 있어요"



◇지난 10일 조계종 총무원청사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원로회의에 참석한 용담스님(왼쪽에서 첫번째).

"물질이 풍족하면 정신 빼앗기기마련 부처님의 삼의일발 소유 뜻 알아야"

용음스님을 찾아가 그동안의 사정이야기를 하니 "그렇지, 불교에서 말하는 불(佛)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야. 생사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을 잘 닦고 안닦고에 달려 있지. 여기서 중노릇 잘하면 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또 질문했지요. "스님,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잘 닦는 것입니까." "시키는 대로만 수행하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한 소임이 공양주였습니다.

공양주 생활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콩을 많이 섞어서 밥을 했는데 내가 하면 이상하게 콩이 익지 않는겁니다. 그러니 난리가 났지요. 어떤 놈이 이렇게 성의없이 밥을 했냐고 말입니다. 결국 큰방으로 불려가 혼쭐이 났어요. 그리고 콩밥하는 법을 가르쳐 줍디다. 그 방법대로 했더니 콩도 잘 익고 밥맛도 좋더라구요. 이렇게 밥을 맛있게 하니 한번은 은사스님께서 나를 불러놓고 "밥짓는 것도 죽지 않는 공부야. 밥하는 법을 잘 알면 밥맛이 좋듯이 생활의 이치를 잘 알면 죽지 않는 법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 이치를 터득하니 반찬만드는 일은 물론 공양간 일에 재미가 나더군요. 이런 마음으로 10여년간 후원에서 일을 하니 밥짓고 빨래하는 것이 능수능란해지더군요. 여기저기서 공양간 일을 해달라고 성화를 받았어요.

이렇게 공양간의 이치를 알게되니 이제는 마음 닦는 법 즉 참선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원에 가서 참선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수덕사를 떠났습니다. 먼저 오대산 방한암스님께 가서 한철나고 금강산 묘향산은 물론 남북한 일대 웬만한 사찰은 다 다니면서 그저 앉고 싶은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참선을 했습니다. 이같은 만행에서 한암스님을 비롯 백양사 석상스님등 당대에 내노라하는 스님들을 찾아뵙고 공부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곳은 금강산 마하연입니다. 아마 그 당시만 해도 선방이 있는 곳이 마하연 뿐이었을 겁니다. 당시 스님들도 모두 참선하기 가장 좋은 도량으로 마하연을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마하연에 들어가서 열 다섯명의 스님들과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시간이 나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참선을 했습니다. 밥짓고 빨래하는 모든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화두들고 참선하는 것만이 수행의 전부가 아닙니다.

"죽지않는 비법 알려면 마음을 잘 닦아야 합니다" 누구도 공부대신할 수 없으니 '진리에 의지하라'

수행자라면 일속에 수행이 있고 수행속에 생활이 있다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찌 진리의 큰 문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내가 직접 빨래를 하고 있는데 시봉하는 스님이 "빨래를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하더군요. 그래서 "이놈아 시봉할 시간 있으면 공부나 더 열심히 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데 이런 데다 낭비를 하려고 해" 라고 야단쳤지요.

나는 스님들이 공부하지 않고 빈둥빈둥거리는 모습을 가장 싫어합니다. 수행자가 됐는데도 게으르고 방일한 스님들에게는 반드시 야단을 치고 호통도 쳐야 합니다. 기본도 안되어 있으면서 선지식인 양 흉내나 내는 것은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물론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야단을 잘 치니까 저절로 무서운 스님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덕숭산 호랑이'란 별명이 붙었나 봅니다. 그저 원칙대로 할 뿐인데 그걸 무섭다고 하면 그것도 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요즈음은 물질이 너무 풍족한 것 같아요. 물질이 넉넉하면 그 물질에 정신을 빼앗기기 마련인데 말입니다. 세속사람들도 물질이 풍족하면 정신을 빼앗기기 마련인데 마음을 닦는 수행자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부처님이 삼의일발(三衣一鉢)만 소유하라고 하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구두를 신고 다니는 스님들을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절집안이란 물질은 부족해도 정신이 점점 풍족해져야 잘되는 법입니다.

마하연에서 수행할 때 화두를 하나 들었습니다. 천지가 생기기 전에 본래 내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것이냐 (天地未生未前 是甚麽). 이것을 일러주시더라구요. 이 화두를 들고 용맹정진하니 서서히 터득이 됩니다. 즉 본래의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는 그놈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이치를 깨친 것은 아닙니다. 알면서도 자꾸 자꾸 수행을 해야 하는 법이지요. 이치를 조금 알고나니 참선이 수월해지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스님들이 모르면 아무 생각없이 공부하라고 도리어 내가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유표(有表)한 것이 있느냐, 싶어요. 유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마음자리 하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어찌보면 마음자리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마음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곳에서 또 하나 생겨나거든요. 생(生)이 있어 사(死)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하나를 잘 깨달으면 둘이 없는 법입니다. 생사가 하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하나가 하나도 없음을 깨달을 때 내 일(수행)을 다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없지만 하나는 있는 것이어서 혹시 전부 없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전부 없다면 무기공에 떨어져 만겁을 수행해도 깨달을 시일이 없어요. 하나는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의 도리를 알기위해 수행참구를 하다보니 어느덧 90이 다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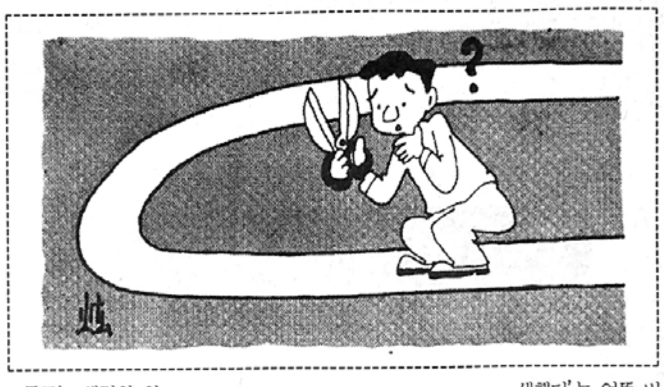
이 몸뚱이 해탈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연이라는 것이 이런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전생에 짓고 나온 인연따라 육신이 소멸되는 법인데 말입니다. 그 인연이 다 될 때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인연이 다 됐다고 해도 죽지 않는 것은 오직 마음자리밖에 없습니다. 이것 말고 죽지 않는 법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소동파, 백낙천, 유의민 등은 천하의 문장가입니다. 문장대사도 이놈(마음)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천하를 다스렸다는 한나라 무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에 그 육신의 흔적이 있습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육신은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내 몸뚱이 성할때 이 놈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이놈 하나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구니의 설이지 불교의 진리는 아닙니다.

수행자는 항상 이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늘도 덮고 땅도 덮는 이 자리 곧 마음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한참 때 해야지 늙어서 깨닫고져 하면 몸뚱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수레가 깨지면 다니지 못하고 사람이 늙으면 닦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참으로 죽고 사는 이치를 잘 알고 위법망구(爲法忘軀)하여 이놈 하나를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법을 일러드리지요. 공부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에게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진리에 의지하라' 고 하신 말씀 그대롭니다. 부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아난을 비롯한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지요. 아무리 훌륭한 부처님도 대신 공부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공부는 자기자신이 해야 비로소 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108

김 용 운

불교와 수학 ②

무한이란 무엇인가

종교는 생명의 의미를 태고이래의 생명의 불씨로부터 영겁의 미래에 이어지는 전생명의 흐름에 투영해서 생각한다. 생명의 시작과 끝에 이어지는 생명의 흐름이 있다. 우선 생명흐름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라는 생명관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날 로마 법황은 전세계의 최고급 과학자들을 모아 천지창조에 관해 솔직한 토론을 하도록 했다. 과학자들은 많은 논의 끝에 드디어 하나의 결론을 얻었으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대폭발(Big Bang)에서 시작되었다는 논의의 결과를 법황에게 알렸다. 그러자 법황은 즉각 "좋다, 그 빅뱅(Big Bang)을 가능케 한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했다는 말이 전하고 있다.

처음의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을 것이며 그것에서 파생되는 생명의 이어짐은 결국에는 직선적이다. 유태·기독교에서는 처음 시작을 천지창조, 그리고 마지막의 끝점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불교적 사유에서는 처음에 빅뱅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면 그 하나님을 존재케 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그 시작에 대한 물음이 계속 소급해서 이어간다. 이 자명한 논리 앞에 어떤 지성도 맞설 수 없게 된다. 이 순환 논리를 끊기 위해 단숨에 신비주의의 틀에서 절대자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시작도 끝도 없는 원환의 생명관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선다.

이 논리적 구조가 현대 수학의 무한소, 무한대를 비롯한 수많은 개념과의 일치점을 갖게 한다.

불교 철학은 이 세상에서 숨쉬는 것과 그것이 살고 있는 환경을 포함하는 모든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여러 얽힘, 즉 연기와 그 결과인 업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논리에서는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출발점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시간의 시작이 없다면 끝도 없다. 그리하여 세계의 시작에 대한 물음은 무의미해진 것이다. '시작은 무시(無始)로부터 발생했다'는 언뜻 비논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명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공간은 원이다. 원 둘레 위의 한 점을 끊어 시작과 끝을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어느 점을 끊을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답이 없다.

현대 수학이 처음 무한론을 수립한 것은 G. 칸토르의 집합이론에서부터 였다. 처음 인간의 수학은 유한만을 다루었다.

1, 2, 3,

1, 2, 3, 4, 1, 2, 3, 4, ……n.,

모든 것은 이런 간단한 수 체계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 철학자가 있다. (즉, 피타고라스 "모든 것은 수") 이처럼 간단한 수의 모임을 확장하면 어디까지 갈까.

1, 2, 3, …… n……

아무리 유한 세계를 고집해도 인간의 이성은 마침내는 무한의 숲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다.

數의 모임 부분과 전체 1:1 대응가능 화엄경의 '일즉다 다즉일' 논리와 비슷

무한이란 무엇인가! 1, 2, 3, …… n……을 보자. 부분이 전체와 1대 1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즉 전체와 부분이 같아질 수 있다. 다음의 대응을 보자.

K_1=1, 2, 3, 4, …… n……

K_2=2, 4, 6, 8, …… 2n……

K_3=3, 6, 9, 12, …… 3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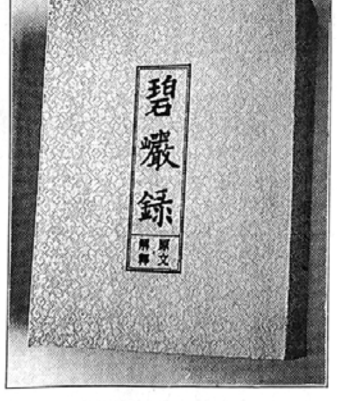
〈화엄경〉에서는 이 사실을 "한 티끌속에 모든 것이 들어간다"고 말한다. K_2, K_3는 K의 일부분인데도 K와 1대 1의 대응이 가능하며 같은 정도의 무한개의 요소를 갖고 있다. 이것은 곧 불교적인 "다즉일 일즉다(多卽一 一卽多)"의 논리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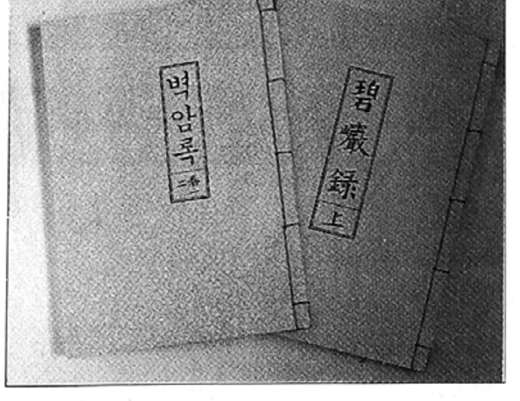
불교는 유태·기독교, 이슬람교와는 달리 교리 또는 교리의 창시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나 귀의(歸依)가 아니다. 스스로의 자각을 바탕으로 타인들과도 어울려 '진실한 지(知), 또는 삶,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종교다. 불교는 무한을 기반에 두고 철학적·과학적인 경향을 지니며 이점에서 현대 수학의 논리와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禪書의 白眉, 宗門의 寶庫

碧巖錄 譯解





碧巖錄

:중국 宋나라의 원오(圜悟)
설두(雪竇)선사가 지은 송고집(頌古集)을
評唱한 선수행의 뛰어난 지침서.
10권. 碧巖集

● 고급한지, 수제본, 케이스入 ● 정가 330,000원

3월중 출간예정

先주문시 20% 할인해 드립니다.

일우스님이 생존시 현토(懸吐)하시고
淨圓스님이 한자, 한획 혼을 기울여
필사와 역해하신 것을 고급한지에
담아 낸 소장가치가 높은 벽암록 완결판!

• 본서는 승속을 막론하고, 선에 뜻이 있는 이들을 위하여 原文에는 친절하고 철저하게 토를 달고, 역해에는 번역과 함께 해설을 하여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용어나 술어 故事들도 따로 색인하지 않고 그때 그때 알 수 있도록 본문에서 처리를 하여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 「벽암록 역해」를 보지 않고 벽암록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며 벽암록의 이해없이 하는 참선은 마치 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려는 것처럼 바른 선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 달마가 불심천자 양무제를 뿌리치고 양자강을 건너 소림사로 간 까닭을 아십니까?

• 본서와 인연 맺는 분 임제의 「할」소리를 한 번은 들을 수 있고 덕산의 「방망이」한대 쯤은 얻어 맞을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 ·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101호) 전화:738-6270, 735-7202 팩스:733-1016